

2010. 3. 15 제235호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2010. 3. 15 제235호

산업·경제

1.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한 독창적인 아이디어 공모 (베를린)
2. 문화예술 분야 실업자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베를린)

도시환경

3. 도시 속 숲에서 뛰어노는 체험 프로그램 확대 (런던)
4. 대규모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 구축 (런던)
5. '지속가능성' 원칙을 모든 도시정책에 적용 (베를린)
6. 전동 자전거 충전시설 확대 설치 (도쿄)
7. '녹지 확보를 위한 종합방침' 수립 (도쿄)
8. 하수도사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25% 감축 추진 (도쿄)

도시교통

9. '2030 자전거계획' 추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市)
10. 시민교통위원회 혁신 및 기능 강화 (런던)
11. 도로공사 안전수행지침 마련 (런던)
12. 새로운 교통경영계획 '스텝업 2010' 수립 (도쿄)

도시계획·주택

13. 광장 등 옥외공간 개선 (런던)
-

1.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한 독창적인 아이디어 공모 (베를린)

○ 베를린市的 매력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 생기 있는 도심과 부심, 이색적인 상가(商街)에서 나온다고 평가받음. 베를린에는 현대적인 인테리어나 화려한 쇼윈도 하나 없이도 관광객과 쇼핑객을 끄는 쇼핑가와 유흥가가 많음. 이들 거리의 공통점은 개성적인 분위기와 생기(生氣)임. 市 도시발전국은 이 점에 착안하여 ‘다양성의 강조’란 슬로건을 내걸고 각 자치구 상업거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모집 중임.

- 모집대상은 지역 상가를 보행자, 쇼핑객 및 관광객, 투자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프로젝트나 캠페인 아이디어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민이 만든 것이어야 함. 선정기준은 ① 지역 특성에 맞게 개성화하는 매력포인트 발굴, ②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 ③ 발굴한 매력포인트가 지속적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여부 등임.

· 2010년 5월 14일까지 응모한 작품 중에서 1차로 8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함. 선정된 아이디어 제출자에게는 4000유로(약 620만 원)를 각각 지급하고, 이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로 발전하도록 전문 상담원을 배치해 진행 과정을 도와줌.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 관청과 주민이 함께 참여해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임. 2010년 말까지 구체화된 프로젝트 중에서 3편의 우수작을 최종 선정해 총 10만 유로(약 1억 5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함.

- 이번 공모전은 市 도시발전국과 경제국, 베를린 상공회의소,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상거래협회, 폭스방크, 갤러리아 백화점, 전자상가 등이 공동 주최함. 공모전은 상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모티브를 각 지역의 강점과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과 활동가로부터 이끌어내고 이들을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함으로써 각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함.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1002/nachricht3787.html)

2. 문화예술 분야 실업자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베를린)

○ 베를린市 노동사회국은 자치구의 문화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7월 ‘문화 아르바이트팀’을 설치함. 이 팀의 목적은 ① 실업률이 높은 예술가의 근로조건 개선, ② 예술적 작업이 필요한 공공업무 확충, ③ 문화예술 분야 활동가와 문화예술기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도모, ④ 문화예술 분야 단기 프로젝트 지원, ⑤ 예술 창의 교육 지원 등임. 문화 아르바이트팀은 최근 1년간의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함.

-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 아르바이트팀은 자치구의 문화예술 분야 업무를 위해 인력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개발을 지원함.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공업무 보조와 문화예술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1년간 창출한 일자리는 총 300개로 전부 임시직임.

· 이 일자리는 고용이 3년간 보장되고 매달 1300유로(약 200만 원)~1500유로(약 232만 원)를 받으며 사회보장 혜택도 있음. 지원자격은 2년간 실직 상태로 있으면서 1년 이상 실업수당을 받고 있어야 함. 지원자 중에서 특기와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함. 2011년까지 이들 인력을 운영하는 데 2000만 유로(약 309억 원)가 들 것으로 예상됨. 市는 연방정부의 노동시장 지원금과 市 문화지원금, 유럽연합의 사회펀드를 이용해 이 비용을 충당함.

· 문화 아르바이트팀이 구성된 이후 3000여 명이 일자리를 지원하고 569개의 문화예술 단체와 기관이 단기 인력 활용 가능성을 문의해 이에 대한 관심과 수요의 정도를 보여줌. 선발된 인력은 주로 지역의 작은 문화예술 기관과 단체에 배치됨. 현재까지 베를린 소재 190개의 단체와 기관이 부담 없이 보조 인력을 확보해 문화예술 분야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인력이 보충된 업무 분야는 주로 문화경영, 기술서비스, 홍보, 문화예술 중개 분야 등임.

- 새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는 대부분 지역 학교에 신설된 예술 창의수업과 같은 문화 교육 프로그램임. 이 프로젝트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교에서 다양한 예술적인 실험을 해보고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창의성이 사회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체험해보는 기회를 제공함. 이는 궁극적으로 베를린의 문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0/02/26/157075/index.html)

도 시 환 경

3. 도시 속 숲에서 뛰어노는 체험 프로그램 확대 (런던)

- 영국 자연보존청은 삼림교육단체인 'Forest Education Initiative'와 함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런던 내 숲을 홍보하고 어린이가 숲을 좀 더 잘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함. 주요 프로그램은 ① '숲에서 놀기'란 주제로 여는 지역 단위 숲 학교(Forest School) 활성화, ②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확대, ③ 어린이 체험학습 프로그램 활성화 등임.

- 이들 프로그램은 자연을 체험한 사람일수록 육체적·정신적 건강이 좋다는 최근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진함. 성인의 40% 이상이 어린 시절에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에 살았다면 요즘 어린이는 10%만이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음. 따라서 런던과 같은 대도시에서 미래 세대인 어린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연 체험이 필수적임.

- 이번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녹지 비율이 높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녹지가 적고 자연 체험을 쉽게 하기 어려운 지역의 어린이를 우선 선정하여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함. 지역 학교 교사와 지역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견학 프로그램에도 이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함.

- 현재 런던은 소규모 녹지 등을 합쳐 전체 면적의 5% 정도가 녹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6대 거점 도시 숲을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음.

(news.bbc.co.uk/local/london/hi/people_and_places/nature/newsid_8513000/8513020.stm)

(www.forestschoools.com/forest-schools-london.php)

4. 대규모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 구축 (런던)

- 런던시는 2013년까지 7500개소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유럽의 전기자동차 수도' (Electric Vehicle Capital of Europe)가 되겠다는 야심찬 투자계획을 최근 발표함. 시는 교통국을 주축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함.

- 7500개소의 충전소 중 6000개소는 직장, 500개소는 거리, 330개소는 주차장, 50개소는 지하철역, 150개소는 슈퍼마켓에 설치함. 우선 1600개소의 충전소를 향후 1년 내에 설립할 예정임. 市는 더 나아가 2015년까지 2만 5000개소의 충전소를 확충할 계획임. 이렇게 되면 런던 전역에 1마일(약 1.6km) 간격으로 충전소가 설치되어 10만 대의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市는 전기자동차 이용과 충전소 설치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함과 동시에 전기자동차 이용 촉진과 대중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임. 현재 런던은 친환경정책이나 산업 분야에서 유럽 대도시 중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음.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london-secures-£17-million-funding-uk's-largest-electric-vehicle-charge)

런던을 배경으로 제작한 영화를 집중 상영 (런던)

- 2010년 3월 21일 제1회 '런던 영화의 날' 행사가 런던市와 BBC 런던 공동 주최로 열림. 이날 런던을 배경으로 찍은 영화 2편이 15곳의 영화관에서 동시 상영됨. 이번 행사는 시민이 영화 관람을 여가생활로 즐기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춤.
- 市는 이를 위해 2편 모두 가족이 다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로 정하고 관람료도 할인해줄 계획임.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제작자·감독과의 만남, 특수효과 기술 전시 및 체험 행사, 동화 구연대회 등도 마련함.

(news.bbc.co.uk/local/london/hi/things_to_do/newsid_8509000/8509022.stm)

5. '지속가능성' 원칙을 모든 도시정책에 적용 (베를린)

○ 베를린市 도시발전국은 베를린의 모든 관청이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 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기본원칙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최근 통과됨. 지속가능성이란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목적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다른 지역이나 다음 세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 지속가능성 원칙과 도시정책을 연결하는 것이 현재 市의 중요 과제임. 경제나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정책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차원에서 면밀히 입안되거나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임.

· 市는 현재 추진 중인 '소단위 지역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지속가능한 사회정책의 주요 사례로 제시함. 이 정책은 지역을 소단위로 나누고 지역 주민이 그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세대나 출신의 차이를 뛰어넘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그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임.

·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사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도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정책임. 이는 고령화 사회에 고령자가 소외되지 않고 젊은 세대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주거양식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모든 연령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되고 통합된 이웃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지속가능성을 도시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이번 계획안은 市 도시발전국과 기후학자,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만든 것임. 이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준과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이 계획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으로써 市의 모든 도시정책과 행정이 지금보다 더 구속력 있게 지속가능성이란 원칙에 기초해 입안되거나 추진될 전망이다.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0/02/23/156669/index.html)

6. 전동 자전거 충전시설 확대 설치 (도쿄)

- 일본 도쿄에서는 전동 자전거가 아이를 기르는 가정의 필수품일 뿐 아니라 많은 시민의 교통수단 역할을 함. 1대당 10만 엔(약 125만 원)을 웃도는 고가임에도 오토바이의 판매량을 초과해 팔리고 있음. 이는 기업에서도 전동 자전거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음을 말해줌. 기업에서는 오토바이보다 초기 구입비가 저렴하고 연료비(1회 충전 10엔, 약 125원)가 거의 들지 않는 전동 자전거를 서비스 및 영업 관리 등의 업무에 활용함.
 - 많은 대형건물 주차장에는 전동 자전거용 주차공간과 충전시설이 있고 일부 편의점이나 공공시설에서도 충전설비가 있음. 최근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을 활용한 충전시설도 정비되고 있어 연료비가 들지 않는 교통수단으로 더욱 각광받을 전망이다. 구청 내 주차시설과 區에서 운영하는 역 주변 자전거주차장에도 태양광 발전 충전시설을 설치해 야간이나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충전하고, 남는 전력은 주차장의 LED 조명이나 비상용 전원으로 활용하도록 함.
 - 도쿄都 세타가야區는 전동 자전거 40대를 업무에 활용하기로 하고 충전시설을 최근 설치함. 區는 고령자와 육아 가정 등 이용자가 재생에너지로 충전한 전동 자전거를 더 많이 활용하도록 유도·지원하고 관광객에게도 이를 널리 알릴 계획임.



건물 주차장에 설치된 전동 자전거 충전시설

(japan.cnet.com/news/tech/story/0,2000056025,20385137,00.htm)

(eco.nikkeibp.co.jp/article/special/20090213/100699/?P=2)

(www.easypark.co.kr/tech_3.html)

(kankyomedia.jp/news/20091201_6904.htm)

(jp.sanyo.com/news/2009/11/30-1.html)

7. '녹지 확보를 위한 종합방침' 수립 (도쿄)

○ 도쿄도에서는 다양한 녹화 추진정책으로 도시공원 등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녹지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기존 녹지의 보전과 새로운 도시공간의 녹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都는 녹지 확보를 위한 기본 방침을 정하기 위해 2008년 8월부터 전문가와 지자체별 검토 등을 거쳐 2010년 2월 '녹지 확보를 위한 종합방침안'을 마련함.

- 이 안은 1000만㎡ 규모의 녹지를 새롭게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기존 녹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향후 10년간 확보할 수 있는 녹지를 명시하고 마을 만들기 정책대상에도 이를 포함함. 都는 각 지자체의 '녹지기본계획' 중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요청할 계획임.

- 도쿄도를 19개 구획으로 나눈 뒤 구획별 지도에 천연림, 이차림, 식림지, 공원, 농지, 하천, 운동장 등 녹지의 종류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기존 녹지를 분류하고 녹지별로 어떤 제도가 적용되고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를 지도상에 표시함.

- 그런 다음 종합방침이 필요한 지역을 지도상에 나타내고 확보 가능한 녹지를 식림지와 농지로 나누어 표시함. 都 내에서 확보 가능한 농지는 '수준 1'(도시공원 녹지사업, 특별 녹지보전지구 지정 등으로 확보)에 해당하는 292만㎡와 '수준 2'(법이나 조례에 근거해 확보)나 '수준 3'(협정 등으로 확보)에 해당하는 13만㎡로 나누어 표기함.

- 마을 만들기 지침도에는 19개 구획 중 시가지화된 16개 구획에 한해 녹지 창출 시책을 구획별 지도에 표시함. 녹지정책과 마을 만들기 정책을 추진해 달성하고자 하는 10년 후 미래상도 제시함. 녹화와 관련된 마을 만들기 사업, 규제책, 유도방안 등도 정리해 고유번호를 이용하여 1만 분의 1 도면에 나타냄.

- 이 방침에 따른 계획기간은 2010년부터 10년간이며, 시행 5년 후에는 방침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함. 都 도시정비국은 이 안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2010년 2월 23일부터 한 달간 의견을 수렴해 방침 확정 시 참고할 예정임.

(www.metro.tokyo.jp/INET/BOSHU/2010/02/22k2n300.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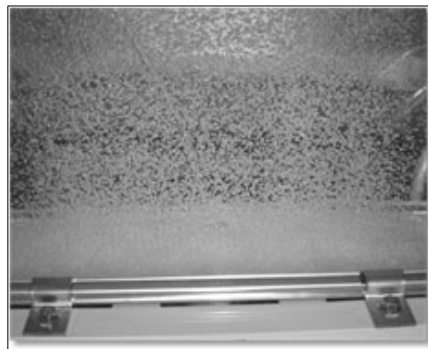
(緑確保の総合的な方針(案), 東京都, 2010. 2)

8. 하수도사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25% 감축 추진 (도쿄)

○ 2008년 기준으로 도쿄都 행정·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약 42%는 하수 처리과정 등 하수도사업 분야에서 발생함. 이에 都 하수도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 대비 2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행동계획 ‘지구계획 2010’(Earth Plan 2010)을 공표함.

- 하수도국은 ‘Earth Plan 2004’를 추진하여 1990년 대비 6% 감축 목표를 조기 달성한 바 있음. 당시에는 슬러지의 고온 소각에 의한 아산화질소(N_2O) 배출량 감축이 대부분을 차지함. Earth Plan 2010에서는 일본 최초의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2014년 18%, 2025년 25% 감축 목표 달성을 추진함.

- 우선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310배 큰 아산화질소 배출량 감축에 초점을 맞춤. 아산화질소는 생물학적 하수 처리와 슬러지 소각 과정에서 주로 발생함. 都는 ① 슬러지 탄화로 증설, ② 신기술을 활용한 슬러지 가스화로 도입, ③ 2세대형 슬러지 소각로 개발 및 도입 등으로 아산화질소를 감축할 계획임. 아산화질소 제거 촉매도 도입해 아산화질소 발생량의 약 80%를 제거함.
-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감축하기 위해 ① 미세 기포산기 장치, ② 에너지 절약형 농축기와 탈수기, ③ 신형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도입도 추진함.



미세 기포산기 장치



아산화질소 제거 촉매

(www.metro.tokyo.jp/INET/KEIKAKU/2010/02/70k2m100.htm)

(아스플랜 2010, 東京都 下水道局, 2010. 2)

9. '2030 자전거계획' 추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市)

○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시의회는 향후 20년간 6억 1300만 달러(약 7000억 원)를 들여 자전거도로와 제반시설을 확충하려는 '2030 자전거계획'(2030 Bike Plan)을 통과시킴. 먼저 첫 사업으로 200만 달러(약 23억 원)를 들여 자전거도로 확충공사가 진행될 예정임.

- 다른 사업은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임. 새로 만든 자전거도로에 기부자의 이름을 붙이거나 기업에 광고권을 팔아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과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여 등록비를 받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음.
- 자전거도로가 확대되어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날 경우 시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각 가정이 지출해온 주유비나 교통비를 절감함으로써 가처분소득이 늘어남. 이는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이번 계획안이 계기가 되어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제반시설 확충에 대한 공감대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www.bizjournals.com/portland/stories/2010/02/08/daily43.html)

세계도시 건설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 (북경)

- 세계도시 건설을 위한 국제포럼이 주중 대사관,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전문가 등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3월 1일 북경에서 열림.

- 중국 대표는 세계도시가 되려면 ① 지명도, ② 영향력, ③ 독특한 매력, ④ 친화력 등 4가지의 '소프트 파워'가 필요한데 북경은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자평함. 한 예로 북경에 진출한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의 수가 이미 뉴욕이나 런던을 넘어섰다고 주장함.
- 북경시는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기 위해 브라질의 삼바축제나 스페인의 투우축제처럼 민족적 특성을 살리면서 국제적 영향력도 큰 축제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http://zhengwu.beijing.gov.cn/gzdt/bmdt/t1105047.htm>)

(北京日报, 2010. 3. 2)

10. 시민교통위원회 혁신 및 기능 강화 (런던)

○ 런던시의회는 런던 내 교통시설을 이용자 중심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시민교통위원회(TravelWatch)를 해산하고 다양한 기관으로 새롭게 구성할 계획임. 그동안 시민교통위원회는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시설과 교통운영체계 감시 등의 활동을 위해 시의회로부터 매년 예산을 지원받아 왔음.

- 시의회는 기존 위원회가 지난 10년 동안 교통시설 이용자를 대표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고 평가함. 하지만 좀 더 나은 기능을 위해 위원회 설립비용 확보방안을 모색하고 교통시설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는 10년 장기계획을 검토 중임.

-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는 향후 10년 동안 서비스의 품질표준을 정립하고 품질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임. 이는 교통시설 개발의 중심에 시민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납세자와 교통시설 이용자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임. 시의회는 이를 위해 위원회 혁신을 위한 검토위원회의 구성안과 규정을 마련 중임.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london_assembly/assembly-agrees-review-london-travelwatch)

11. 도로공사 안전수행지침 마련 (런던)

○ 런던시는 도로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과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 공공서비스 제공업체, 자치구와 공동으로 도로공사 안전수행지침을 마련함. 시는 상수도·전기·가스 등 공공서비스 제공업체와 지자체 관계자와 함께 2010년 3월 12일 ‘도로관리 대표자 회의’(Road Management Summit)를 개최함. 이번 회의에서는 도로공사로 인한 불편을 줄이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하게 됨.

- 현재 런던 내 도로공사의 90%는 공공서비스 업체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수행지침이 도로공사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에 앞서 시는 2009년 공공서비스 제공업체와 도로공사 안전수행지침에 관한

협약을 맺어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 도로공사를 많이 줄인 바 있음.

- 이번 안전수행지침은 ① 공사 허가, ② 장기 도시계획, ③ 출퇴근 시간대 이외의 공사 진행, ④ 표준 안전표지판 설치, ⑤ 노면 개선, ⑥ 시행사례 등으로 구성됨.
- 공공서비스 업체가 市의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도 시행됨. 이 지침은 도로 혼잡과 시민의 불편 등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향후 도로공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calls-road-management-summit-and-strengthens-capitals-code)

전기차 도입 확대 추진 (샌프란시스코)

- 샌프란시스코市는, 전기차 도입 확대의 성패가 차량 이용자의 생활권과 충전소의 근접성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자 새 건물을 지을 경우 건물 내에 하이브리드 차량 충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또한 충전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이 동시에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야간에 충전하거나 스마트 전력미터기로 남은 전력량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유도함.
- 이러한 市 정책에 발맞춰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전기·가스 공급회사 PG&E는 동시에 200대의 차량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스마트 충전’ 프로젝트를 시범 실시하기로 함.
- 전기차를 이용하면 운전자는 1마일(약 1.6km)당 평균 2.5센트(약 30원)의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데 이는 가솔린차보다 훨씬 저렴함. 이산화탄소도 적게 배출해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득임.

(www.nytimes.com/2010/02/15/business/15electric.html)

(www.planetizen.com/node/42935)

12. 새로운 교통경영계획 '스텝업 2010' 수립 (도쿄)

○ 도쿄都 교통국은 기존 경영계획인 '신(新)챌린지 2007'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책을 펼쳐 왔음. 그런데 최근 기존 성과를 계승하면서 변화된 환경과 경제, 재무 여건에 적합한 새로운 경영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이에 都 교통국은 2010~2012년의 목표와 연차계획을 제시한 새로운 경영계획인 '스텝업 2010'을 최근 공표함. 교통국은 2011년 대중교통 개통 100주년을 맞아 이 계획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새롭게 마련된 경영계획은 크게 ① 안전·안심 확보, ② 질 높은 서비스 제공, ③ 사회적 요구에의 대응, ④ 경영역량 강화 등으로 구성됨.

-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지하철 구조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2013년 까지 오오에도선(線)의 전체 역에 홈 도어를 설치하며 모든 노선버스에 드라이브 리코더(Drive Recorder)를 설치함. 홈 도어는 스크린 도어와는 달리 승객의 상반신 높이만큼 설치하며 스크린 도어보다 설치비용이 적게 듦. 드라이브 리코더는 교통사고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순간 주변 상황을 찍는 장치로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비슷한 역할을 함.
- 전철 이용을 촉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노면전차인 아라카와선(線) 등을 홍보하여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함. 또한 교통수단 운행체계를 합리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인재를 육성해 경영역량을 강화함.



오오에도선(線)에 설치된 홈 도어



드라이브 리코더로 찍은 영상

- 2012년까지 3년간 추진할 사업은 총 91개로 이 중 신규사업은 25개임. 특히 안전·안심 확보 사업에 총사업비의 62%를 투자하기로 함. 都 교통국은 2012년에는 지하철, 버스, 전차 등의 사업 분야에서 흑자 달성을 목표로 함.

(www.metro.tokyo.jp/INET/KEIKAKU/2010/02/70k2m400.htm)

(www.kotsu.metro.tokyo.jp/information/plan/plan2010.html)

이민자 사회통합을 결의하는 ‘유럽헌장’ 서명식 개최 (런던)

- 런던시는 2010년 2월 이민자를 차별 없이 대우하고 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할 것을 결의하는 ‘유럽헌장’(European Charter) 서명식을 개최함. 이 행사는 런던시와 유럽연합이 공동 주관하고 유럽의 10여 개 대도시 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함.
 - 런던 시장은 런던은 300개의 언어가 사용되는 다민족 사회로 이민자들이 최상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천명하고 유럽연합도 이민자의 기술, 열정, 기업가 정신을 수용하여 미래 사회를 함께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함.
 - 시는 이민자가 주는 경제적 이익을 보여주기 위해 런던에 5년 동안 살았던 30만 명의 이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최근 발표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london-signs-european-charter-migrant-integration)

13. 광장 등 옥외공간 개선 (런던)

○ 런던시는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옥외공간 개선 프로그램’(Great Outdoor Programme)의 일환으로 광장 개선사업에 착수함. 시는 이 프로그램의 상징적인 프로젝트로 램버스(Lambeth)區的 윈드러시 광장 개선사업을 최근 완료함.

- 시는 램버스區, 디자인런던, 런던개발청과 공동으로 기존의 광장을 지역의 이벤트 등을 위한 커뮤니티 중심 공간으로 변모시킴. 광장의 역사성, 치안상황,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중심부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조성함.

· 광장에 나무를 심고 자그마한 수변 공간을 만들었으며, 디자인과 예술적인 기법을 활용해 가구거리를 조성하고 야간 조명을 설치함. CCTV를 추가 설치해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고 치안을 유지함.

- 새롭게 조성된 광장은 지역 커뮤니티의 활동이나 놀이, 문화공간으로 활용되어 기존 커뮤니티의 활성화와 창의적인 커뮤니티의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mayor-unveils-new-bigger-brighter-greener-windrush-square-brixton)